

지역 소식통

부안, 노인복지 무료 지원

부안군은 치아 결손으로 음식을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2021년 무료 노인복지(틀니)사업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5명에게 완전치(틀니), 부분치(틀니) 시술비용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며, 신청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와 보건소 방문보건팀 구강보건실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단 과거 보건소에서 의치(틀니) 위, 아래를 시술을 받은 자 또는 치과의원에서 7년 이내에 혜택을 받은 자와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 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청자는 보건소 구강보건실 구강검진 및 상담을 통해 틀니의 용이성, 시술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 후 본인이 희망하는 협력 치과의원에서 틀니 시술을 받으면 된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 활력있는 농촌 만들기

고창군이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활력 넘치는 주민주도형 농촌 만들기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중점 추진 사업으로는 ▲테마가 있는 자연마을 조성 ▲생생마을 만들기 지원사업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등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행정에 적극 반영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게 된다.

사람 냄새가 나는 마을, 마을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드는 마을, 시골벽적인 생기와 행복이 들게 하는 다양한 마을사업과 지원활동을 할 예정이다.

고창군청 이영운 농어촌식품과장은 "코로나19와 지역의 고령화로 점차 활기를 잃어가는 지역농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사업에 적극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 아열대 특화작물 발굴

공심채·베트남 잣 배추 등 20여 종 연중 재배 기반 조성, 고소득 창출 기여

아열대 작물이 시설하우스에서 재배되면서 정읍지역에서도 품질이 우수한 아열대 채소가 새 소득 작물로 각광 받고 있다.

시에 따르면, 국내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해외여행에서 맛본 이국적인 음식을 선호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식습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또, 다국적식당과 국제식품 판매장이 증가하고 있어 아열대 채소에 대한 수요와 시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영농환경개선과 특화작목 육성, 기후변화에 대응한 소득작목으로 아열대 채소를 시험 재배하고 있다.

정읍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열대 채소는 공심채와 베트남 잣 배추, 오크라 등 20여 종이다.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태인면 김수연 농가에 겨울철 안정적인 재배를 위해 시설하우스 내부에 다중 보온터널을 설치해 지역 적응성을 테스트하고 있다.

그 결과 최근 지속된 한파에도 아열대 채소의 저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작물을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어 고소득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어려운 허브 향신료들을 연중 재배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면서 농가 소득이 전년 대비 40~50%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현재 정읍지역에서 재배가 한창 진행 중인 베트남 잣 배추는 우리나라 여수 잣보다 특 쏘는 맛이 달하고 부드럽다. 또, 배추처럼 잎이 넓어 결절 이김치로 입맛이 없을 때 먹으면 좋고 우리나라 봄동과도 잘 어울린다.

공심채는 동남아시아에서 흔하게 먹는 국민 채소인 동시에, 음식으로만 쓰이지 않고 자연에 무해한 친환경 빨대로서도 유용하게 쓰인다.

오크라는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과 베타카로틴,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지만, 칼로리는 낮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영농현장에서 지역 농업인들의 영농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고, 지역의 특화작목을 발굴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는 지난 20일 청년창업 챌린지쇼에서 도시재생 대학 수료식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읍, 도시재생 전문가 탄생

청소년 15명 수료 ... 관련사업 활력 기대

정읍시가 지난 20일 청소년 도시재생 대학 과정을 모두 마치고 청년창업 챌린지쇼에서 수료식을 성황리에 마쳤다.

청소년 도시재생 대학은 청소년 맞춤형 도시재생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로 원도심의 주역을 양성하는 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이다.

청소년의 관점에서 원도심 발전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역문제 해결 방안과 실행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수료식에는 유진섭 시장을 비롯해 도시재생 대학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시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2회에 걸쳐 진행된 청소년 도시재생 대학은 도시재생 전문가의 강의와 미션을 통한 중심시가지 현장 탐방, 워크숍 등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태평로와 우암로 일대 원도심 지역에서 그들의 시각으로 도시를 바라보고 문제점을 찾았다.

특히, 미션을 통한 중심시가지 현장 탐방과 워크숍을 통해 그들 방식으로 동네를 표현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고 사업제안서를 기획하며 역량 강화를 꾀했다.

시는 청소년 도시재생 대학 운영을 통해 본격적으로 추진될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도시재생 대학 과정을 수료한 것에 대해 축하드린다"면서 "앞으로 우리 시의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리더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산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추진

13억8000만원 투입

8개 분야 66명 선발

정읍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의 관리를 위해 올해 약 13억8천만원을 투입해 산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산림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산림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총 8개 분야 66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추진할 예정이다.

일자리 분야는 ▲공공산림 가꾸기 ▲산사태 현장 예방단 ▲당골류 제거단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산림 병해충 예방방제단 ▲도시녹지관리원 ▲숲길체험지도사 ▲숲 생태관리원이다.

시는 공공산림 가꾸기와 당골류 제거를 통해 지속 가능하고 공공성이 높



은 산림을 육성하고,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의 산림 병해충 예방방제단, 산사태 현장 예방단을 운영해 산림재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도시녹지관리원과 숲길체험지도사, 숲 생태관리원을 통해 산림휴양·녹지 경관을 개선해 시민들에게 양질

의 산림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참여자 신청을 받았으며 서류검토와 면접을 거쳐 분야별 최종 참여자를 선발해 2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과 재정지원을 지원하는 취지로 참여자 선발 시 취업 보호 대상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한다.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주5일 근무를 원칙으로 작업별·시기별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올해 1일 임금은 6만9,760원이다.

시 관계자는 "산림 분야 일자리를 통해 산림자원을 보다 가치 있게 만들어 경관을 개선하고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역대 농생명부서장·농업직사무관 초청 강연

고창군이 21일 군청 종합상황실에서 역대 농생명부서장과 농업직사무관을 초청해 농생명식품산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듣는 자리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전북 최초로 시작한 고창 농민수당의 전국적 확대에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또 고창 농산물이 브랜드가 없어 아쉬움이 있었는데 통합

브랜드 '높고고창'으로 황토에서 재배되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이 재배 받고 팔릴 수 있는 브랜드 기반을 만들어 뿌듯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여기에 농기계 배달서비스에 대해서도 지역 민들의 칭찬을 전하며 저출산고령화 시대 농촌일손 부족을 해결할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코로나 19 대응에 맞는 농산물 판매전략 ▲농업·농촌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군의 안정적인 지원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작물과 기반미련 등을 위한 지원책 등을 제안했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도 농가분들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고창의 농정 발전과 농업인 권익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장명동, 재난기본소득 현장 접수

장명동 주민센터가 정읍시 2차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찾아가는 방문 신청에 들어가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방문 신청은 독거노인과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교통 취약계층 등을 위해 주민센터 직원들이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을 돕는 서비스다.

특히, 사전 온라인 접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장명동은 직장 때문에 신청이 어려운 영청아파트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22일(금) 아파트 현지를 방문해 신청을 도울 계획이다.

신청 후에는 10만원이 충전된 무기

명 선불카드가 지급되며, 6월 말까지 지역 내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온라인결제와 사행·유흥업소, 전자상거래, 각종 공과금 등은 사용할 수 없다.

마을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직접 마을까지 와서 지원금을 전달해줘서 고맙게 잘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명석 동장은 "정읍시 재난기본소득이 모든 주민에게 빠짐없이 전달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112' reporting crimes. It features a woman covering her face in distress and text explaining the benefits of reporting crimes, such as receiving support for victims and helping to prevent future incidents. The text includes '착한신고 112' and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